

선교가 길이다

(롬11:25-26)

서론: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 응답과 역사를 누릴 수 없습니다. 개인이 흔들리고 무너지며 세상 따라가다 세상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개인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 비밀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개인화가 되는 만큼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로 먼저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유월절 구원의 역사와 오순절을 통한 성령 충만함의 축복, 그리고 수장절을 통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중한 추수는 보좌의 배경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전도, 선교에 있음을 알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1. 복음의 눈을 가져라

가.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취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자녀로(롬8:17) 참된 예배자, 참된 정복자로서 삶을 살아가며,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주신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롬6:16, 18).

나. 우리의 모든 눈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 고정되며, 그리스도가 인생의 내용이 되게 하옵소서.

-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사탄을 꺾으며,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교회의 비밀이 전도와 선교에 있음을 알고, 이것이 나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2. 교회의 비밀 - 선교

가. 나의 가정, 자녀, 산업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선교에 집중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옵소서.

- 나와 우리 후대들이 가야 하는 길이 선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목표와 방향과 뜻대가 되게 하옵소서(마28:18-20, 막16:15-20, 행1:8).

나. 교회가 힘이 없어 무너지며, 선교하지 않고, 복음만 약화 되는 교회를 살리는 길인 선교에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심을 알게 하옵소서(마24:14).

-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열국의 제사장으로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남은 자로 부르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결론: 우리의 참된 감사는 보좌의 배경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남은 생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귀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가 길이고, 선교가 길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